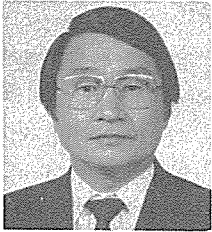


# 乳加工 業界에서 본 나의 所見



(株) 빙그레  
社長 朴貞秀

우리나라의 酪農産業이 幼稚産業이었던 60年代初 國民體位向上과 保健增進에 기여할 수 있는 事業이 酪農이라는 事實에 입각하여 現在の 酪農振興法이 만들어졌고 또 이를 바탕으로 政府의 主導下에 오늘날 量的, 質的으로 發展된 낙농이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1962년에 原乳生産量이 全國적으로 2,647<sup>M<sup>T</sup></sup>에 불과하던 것이 그간의 高度經濟成長에 힘입어 半世紀가 지난 '88년에는 무려 616%나 伸張된 1,631,896<sup>M<sup>T</sup></sup>이나 되었다.

이와같이 그간의 量的增加는 놀랄만큼 팽창되었으며 消費또한 엄청나 每年 20% 以上 高伸張에 不足되는 원유를 供給하기 爲해 粉乳수입, 다소 무리한 젓소도입등의 方法으로 産乳量의 增産에만 主力해 온 것이 事實이다. 원래 우유란 것이 保管性이 弱하여 신속한 가공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우유內 營養분 이 많이 들어있는 만큼이나 다루기 어려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낙농선진국에서도 季節的인 需給不均衡이 問題點으로 되어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고도경제성장 에 힘입어 수요의 팽창으로 공급이 主로 不足한 時代에만 살아 왔으며 이제 是 絶對量自體가 커져 원유의 공급과잉 時에 대비한 경험축적이 덜 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80년대에서 부터 몇차례의 쓴고비를 맞보아가며 공급이 소비를 앞지르는 과잉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특히 '89년에 와서는 이 현상이 노골화되기 시

작하여 많은 전문가들은 낙농의 장래를 걱정하고 있으며 낙농선진국들도 이와 똑같은 부족, 공급과잉의 난파를 헤쳐 온 것을 거울삼아 우리도 슬기롭게 대처해 보자는 데 입을 모으고 있음은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낙농진흥을 爲해 극히 多幸한 일이라 하 겠다.

낙농진흥법 改正(案)의 취지 및 目的은 첫째 원유 의 수요와 공급안정을 위한 調節方案, 둘째, 원료확보를 爲한 集乳業體들의 과당경쟁에서 기인된 不合理한 集乳方式을 改善하므로써 現在보다 저렴한 값으로 消費者에게 乳製品을 供給하고 이로써 소비의 저변확대는 물론 消費安定을 기하고(사실 그간 낙농발전에 있어 그 功을 담당해온 유업체의 功이 컸다고 볼 수 있으나 또한 이로인해 자연 발생적으로 복잡다단한 불합리한 集乳방식이 産物로 태어났다.) 셋째, 낙농가보호를 爲한 원유검사의 公正性 및 유질향상으로 소비자로부터 外面 當하지 않고 販賣増大를 避하므로써 원유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팔리지 않는 생산은 절름발이가 되는 결과를 미리 대처하여 장기적인 낙농진흥을 避해보고자 하는 것이 目的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 需給安定, 調節이라는 것이 꼭 必要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실현 方法은 그리 간단하지 않은 앞기에 現在の 制度와 方法을 改善코저 함에 서로의 利害상충, 意見의 差異가 생긴 것이 現實이

다. 이는 마치 어느 학자가 건강의 비법이란? 영양이 골고루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해야 되고, 과식하지 말고, 공해없는 물과 산소를 마셔야 되며, 적당한 운동과 수면을 취하고 과욕을 부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우유도 마찬가지로 그간 不足시대에 物量의 高度伸張만 거듭해 온 우리 낙농이 이제는 消費를 전제(前提)로 한 安定生産이 보다 나은 미래를 約束할 수 있는 길이기엔 人爲的인 탈바꿈, 우리 스스로의 努力이 수반되지 않고는 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表 1에서 보듯이 이웃 日本의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의 約 7배에 달하는 산유량과 소비를 갖고있는 낙농대국이 되었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60년대에는 수급불균형에 따른 엄청난 피해가 있어 낙농가는 우유를 쏟아버렸어야 했고 정부와 유가공업체는 출혈을 거듭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80년대에 이르러서는 원유생산량도 소비량도 안정을 찾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낙농진흥법 개정(案)의 具體的인 面을 살펴보면,  
첫째 : 낙농위원회 設立에 關하여

과거 농경시대에는 自給自足하였으나 세상이 複雜해지고 국제경쟁시대에 살고있는 우리는 우리나라

라 힘만 가지고는 獨存할 수 없는 것이다. 特히 賦存資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輸出과 輸入이 균형을 잃게되면 살 수가 없다. 수출주도형의 우리나라 경제여건 속에서 국제 競爭力이 弱한 농수축산물의 保護를 爲해서는 政府의 강한 의지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撐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이다. 미국, 영국, 일본, EC諸國 등 낙농선진국의 낙농발전사를 보더라도 산업화의 과정에서 우리와 같은 각종 시행착오와 버림받은 낙농의 시련을 겪어오면서 그들은 必要에 따라 모임체를 만들어 어려움을 극복하였고 오늘날과 같은 發展을 거듭해왔다. 우리도 이제 생산자, 가공자, 소비자, 정부로 연합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말 우리일을 우리 스스로 심의(審議)하고 해결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공조체제의 모임이 필요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동위원회를 非常設로 하자는 意見도 있으나 내생각에는 문제점을 의논하였다면 한곳에서 해결책도, 수급조절도 집행할 수 있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萬一 非常設로 두고 집행권을 주지 않는다면 現在의 낙농심의회와 하등의 그 役割이 다를 바 없으며 집행권이 없다면 마치 불이 났을 때 화재원인과 문제점이 무엇이나고 지적만 할 뿐이지 막상 불을 끄

表 1. 한국, 일본의 산유량 및 음용유 소비현황

단위 : 천M/T, %

년도	한국					일본				
	산유량	전년대비 증가율	음용유 소비량	전년대비 증가율	산유량중 음용유비율	산유량	전년대비 증가율	음용유 소비량	전년대비 증가율	산유량중 음용유비율
'80	452	118.6	259	113.1	57	6,503	104.8	4,071	104.1	63
'81	513	113.5	341	131.7	67	6,620	101.8	4,268	104.8	64
'82	576	112.3	401	117.6	70	6,747	101.9	4,346	101.8	64
'83	712	123.6	497	123.9	70	7,042	104.4	4,405	101.4	63
'84	841	118.1	588	118.3	70	7,140	101.4	4,456	101.4	62
'85	1,006	119.6	714	121.4	71	7,377	103.3	4,406	98.9	60
'86	1,154	114.7	884	123.8	77	7,454	101.0	4,368	99.5	59
'87	1,413	122.4	1,065	120.5	75	7,322	98.4	4,566	104.1	63
'88	1,632	115.5	1,263	118.6	77	7,608	103.8	4,797	105.1	63

※ 자료 : 낙농 관계자료(농림수산부), 酒類 통계월보(일본)

기 위한 행동에는 미흡한 바, 불을 끄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여건 조성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 : 集乳組合의 指定.

集乳는 어느기관에서 하던 상관없다고 본다. 但地域内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效率的으로 集乳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어야 된다는 것이 前提되어야만 한다고 본다. 이유는 낙농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乳質이 上等級인 원유는 飲用乳用으로 先供給되고 그 以下의 것은 加工用乳로 使用되고 있기 때문에 集乳와 檢査가 병행되어야 되는 現實에 아직 外國수준에는 못 미친다 하더라도 과거보다는 우리의 原乳品質도 많은 向上을 거듭해 왔는바 차체에 끊임없는 原乳의 品質向上으로 消費者에게 信賴를 더 높여주는 것이 杞憂일지 몰라도 消費增大的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現在와 같이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한 동네에 수개의 집유업체 차량이 운반하는 것은 분명코 유제품 생산원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결과적으로 소비자가격을 높이게 되는 원인제공이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 검사의 공정성 및 방법개선.

현재의 乳脂肪率 한가지만 가지고 原乳價를 決定하는 것은 분명 모순이며 이와 관련된 相互의 不信과 誤解는 사라져야 한다. 금년 4월부터 乳價引上時 유지방率등락의 단가격차가 크게된 現實에서는 더더욱 불신의 소지가 高潮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유업체는 더 준 것 같이 생각되고 낙농가는 항시 덜 받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낙농가도 손해가 가서는 안되고 유업체도 손해가 가서는 안되는 方法의 改善 즉, 유지방율, 단백질, 체세포수, 세균수등을 복합 적용하는 원유등급적용의 검사 및 단가체제가 必要하며 검사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가 병행되어야만 原乳品質을 向上시킬 수 있는 길임은 말할 것도 없다.

넷째 : 自助金の 設置

우리나라 낙농업이 외국에 비해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나 外國의 農産물이

우리 것보다 반드시 월등히 싼 것만도 아니다. 自體努力, 정부의 支援을 업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 財物이 있는 곳에 뜻이 있다는 말과 같지만 0.1%만이라도 내 것이 들어있다면 생각은 다를 것이라 본다. 혹자는 우리 국민의식이 내 것은 아끼고 공공시설물, 남의 것은 막 쓰는 경향이 있다는 理論을 들어 畜産振興基金같이 써 진다면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하느냐고 反對 意見を 펴는 사람도 있으나 共有物이란 쓰는 者の 용도와 方法이 잘못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잘 쓰여지고 効用을 높인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민족은 옛부터 상부상조의 정신아래 각종 계모임, 추렴하여 천렵을 한다든가 하는 미풍양속이 있어왔다. 낙농가도 일부내고 정부, 유업체도 십시일반 基金을 만들어 우리가 당면한 일을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정말 올바른 方法과 꼭 必要한 곳에 써 진다면 분명 酪農은 發展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한다. 나보고 쓸 곳을 얘기하라면 선진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종국개량사업, 유방염 공동방제사업, 유제품공동홍보, 우유어린이 장학금사업등 무수히 열거할 수 있다. 낙농이 축산에서 세분화되고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종국적으로 낙농을 日就月將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方法일 것이다. 우리의 일을 누가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을 만큼 낙농도 커졌으며 어느누구도 우리의 아픔처럼 생각을 같이해 처리해 주지는 않을 것인바 이 共助體制가 成立될 때 농수산물 수입 개방에 대처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끝으로 아무리 좋은 제도이고 좋은 것이라 할 지라도 모든 사람의 가슴을 시원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은 세상에 없고 문제점이 남아있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보다 나은 장래를 위하여 産苦는 뒤따를 것이고 아픔과 試行錯誤는 있을 것이지만 계속 改善과 補完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 본다. 모쪼록 이나라 낙농진흥을 爲하여 입을 모은 것이라면 不偏不黨한 改正이 이루어지길 바란다.